

감사의 글

논문을 마치는 이 순간, 기쁨과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써 논문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학부생활과 대학원생활을 통해 항상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연구자의 모습과 지식으로 학문 뿐 아니라 생활태도와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송규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손장열 교수님과 전진용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학부와 대학원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병해 교수님, 신성우 교수님, 박재승 교수님, 양내원 교수님, 김용승 교수님, 정인하 교수님, 김경래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실의 모든 선배님들과, 동기, 후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신 광노열 선배님과 인호형님, 언제나 잘 챙겨주는 승민이누나, 난행이누나, 새신랑 선효, 불꽃 같은 영태, 멋쟁이 회원이, 활달한 미정이, 터프한 종태형, 젊은 황기형, 자상한 경석이형, 희운이형, 한진이형, 똑똑한 막내 금룡이, 실험에 도움을 준 정현이, 대호형, 논문 제출에 많은 도움을 주신 태희형, 원열이형과 모든 졸업한 연구실의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 하면서 많이 고생시킨 우리연구실의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넓은 아량과 이해심으로 연구실을 이끌어가시는 기동 민성이형,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동철이 형, 사회에 나가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종주형, 언제나 듬직한 정원이형, 새침떼기 승민이 형, 다시 돌아온 논문 준비할 혜인, 영주, 연구실의 중심이 될 새내기 주윤이, 씩씩한 연주, 성실하고 착한 혜원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랜시간 연구실에서 전투를 하며 생사를 같이 한 성훈이형, 재미있는 우열이 형, 막내들 상원이, 정인이에게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그 밖에 대학원생활동안 3,4 학년을 같이 보며 지낼 수 있었던 사랑하는 모든 93 학번 동기들 - 찐따 진우, 털보 양쓰, 철인(Fe.P), 야재권, 상원, 세창, 한성, 광석, 스나이퍼 석, 승중, 재훈, 준태, 종인, 기범, 명학, 야식 & 논문메이트 호영, 언제나 밝은 인상의 한백이, 미연이, 민경이 등등(93 학번 주소록 참고)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실험조교 하는 동안 뿐 아니라 대학원 생활에 많은 도움과 즐거움을 주신 오영이형, 기수형, 은석이형, 재환이형, 어은희 누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 하영이형, 구섭이형, 씨니형, 은영이, 혜영이, 재선이, 항상 곁에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신경써주지 못한 고교 동창들, 정훈, 석중, 지형, 태현, 원석, 호진, 성훈, 경용, 영기, 석태, 지태, 태승, 창우, 성원, 혁, 상영, 인석이와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딩에서부터 논문쓰는 방법, 자료정리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시작에서 끝까지 자기일처럼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신 기형이형에게는 말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과 보답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끝으로 어릴때부터 항상 저의 버팀목이 되었던 형과 늘 사랑과 헌신으로 저의 길을 준비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9 년 12 월
李 正 鎬